
1차 6.15 이행을 위한 학생단위 대표자 간담회

일시: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5월 4일

장소: 민족자주 서울산업대학교

순서

1. 각 단체 인사
2. 간담회 제안배경 설명
3. 공유 안건
 - 각 단체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결의
 - 2002년 각 단체별 교류사업 계획
4. 논의 안건
 - 2002년 민족대단결 사업에 대한 전망과 학생단위 목표
 -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조직건설에 대해서
5. 공동결의문 채택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학생단위 대표자 간담회 준비위(가)

<간담회 제안 배경>

2000년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로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15 민족통일대토론회와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로 조국통일에 대한 낙관과 신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요, 꽃대입니다.

현재는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공동선언 이행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대인 청년학생들은 공동선언 고수, 이행에 선두에 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땅의 청년학생들은 분열 역사상 처음으로 <6.15 공동선언 실천, 2001 민족공동행사 청년학생 추진위원회>를 건설하여 사상과 정견, 종파를 뛰어넘어 단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서 2002년에는 청년과 학생의 상설적인 조직체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학생단위가 함께 뜻을 모으고 공동선언 이행에 한마음으로 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에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남북청년학생 상봉모임과 8월 중순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단위가 함께 실천하고 조국통일에 대한 마음을 모은다면 더욱 큰 성과를 내을 것입니다.

이에 첫 출발의 장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학생단위 대표자 간담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늦게 급박스럽게 제안을 드리지만 공동선언 이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마음이라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담회 의의>

- 2001년 청학추위의 성과를 더욱 계승하면서 대학생들이 사상과 정견, 종파를 넘어서서 6.15 공동선언 정당성, 역사성을 합의하는 자리이다.

- 2002년 공동선언 실천사업에서 6.15 민족통일대축전 거족적 성사와 8월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등을 학생단위에서 함께 준비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 2002년 장기적인 전망으로 청학연대의 상설적 조직전망을 그리는 속에서 학생단위의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조직적 전망을 함께 그리는 장이다.

<2002년 남북 교류사업 계획서>

1. 4월 5일 남북공동보도문

<공동보도문 전문>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정세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체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②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데 따라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6.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 5일 평양

2. 4월 12일 남북공동성명

<남북단체 공동성명>

남과 북의 각계단체 대표들의 접촉이 4월 11일과 12일 금강산에서 있었다.

남과 북의 각계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올해의 통일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 한다.

남북 단체들은 지난 4월 5일 평양에서 쌍방 당국사이에 발표된 남북공동보도문을 적극 지지 환영하며 이를 힘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2. 남북단체들은 올해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남북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4. 남북단체들은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통일행사, 그리고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청년학생 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통일행사들을 진행하며 이 통일행사들을 진행할 장소 등 구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 확정해 나갈 것이다.

5. 남북 단체들은 연대와 단합을 도모하고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02년 4월 12일 금강산

<2002 민족공동행사 남측 추진본부(가칭)> 준비현황

- 지난해 민족화해협의회, 7대종단, 통일연대는 <6.15 공동선언 실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건설하고 6.15 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진행하며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건설하면서 2002년도 공동의 실천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10-12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 민간단위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2002년 남북민간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남북간에 6.15 민족통일대축전, 8월 민족공동행사, 남북여성대회(7월 중순),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등을 합의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논의는 2차 실무회담을 진행하는 속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족화해협의회, 7대종단, 통일연대는 2002년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9일 <2002 민족공동행사 남측 추진본부(가)>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5월 13일에는 남북 민간단위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2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학추위 조직건설에 대한 전망>

- 지난해 6월 10일 <6.15 공동선언 실천, 2001 민족공동행사 청년학생 추진위원회>를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측의 광범위한 청년과 학생단체들이 건설하였습니다. 35개 단체와 12개 지역조직을 건설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8.15 민족통일대축전 이후에는 조직의 발전적 전망을 위하여 청학추위를 해소하고 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조직은 해소하였으나 서울 북부, 수원, 부산에서는 상설적 청학연대 조직을 건설하여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청년과 학생들의 실천의 폭은 더욱 넓어지는 성과가 있습니다.
- 청학추위는 건설의 과정에서 6월 8일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건설 이후에는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 7.22 청년학생 문화제 진행, 청년학생 선언운동, 통일대행진단의 운영과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참가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공동선언 이행으로 청년과 학생들을 결집하였습니다.
-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난해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에 대한 합의를 보면서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공동선언 실천의 주체, 조국통일의 선봉부대로서의 역할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청년,학생의 상설적 조직 건설을 위한 발전적 전망을 그리면서 해소하였으나 아직 구체적 조직적 형태를 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4월 29일 민족화해협의회, 7대종단, 통일연대 집행위원장과 청학추위 집행단 (KYC, EYC, 한청, 범청학련, 한총련) 모임을 진행하면서 2002년 청년학생 조직전망에 대한 논의와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를 함께 준비할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5월 3일 청학추위 집행단 진행...

청년학생의 단결 된 힘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2000년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의 발표는 7천만 겨레가 식민과 분단의 사슬을 넘어서서 해방과 통일을 선언한 기념비적인 날이다.

우리 민족은 수 천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하기에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 닥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민족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며 수난의 역사를 넘어왔다. 하기에 일본으로부터의 36년간의 치욕의 식민의 역사를 우리 민중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조국분단이라는 또 다른 민족 앞에 닥친 시련을 투쟁으로 하나 된 민족,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1900년대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0세기 마지막 해, 2000년 우리 민족은 미국에 대한 조국분단 역사를 끝내고 통일의 여명을 밝히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전 세계 민중들 앞에 선포하며 21세기를 한민족의 세기로 만들 것을 선포하였다.

지난 해 2001년,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의 활력과 위력을 온 민족과 전세계 앞에 뚜렷이 과시하였고 민족자주운동 고양, 통일 주체역량 축성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며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었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의 7천만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는 거족적이며 애국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며 지난해 합법적으로 7천만 겨레의 상봉이 성사되었다.

특히 청년학생 단위에서는 조국분단 사상 처음으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는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바로 6.15 공동선언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민족공동의 자랑 찬 승리이다.

이렇듯 6.15 공동선언만 있다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달성될 것이라는 것이 7천만 겨레의 가슴에 신념과 확신이 넘쳐나게 되었다.

2002년은 역사적인 새 세기의 두 번째 해이며 공동선언 발표 2돐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2002년 7천만 겨레 앞에는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실천적 구호가 놓여져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언을 더욱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더욱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시정권의 등장과 지난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고 이북을 대상으로 하는 핵전쟁은 준비되고 있다.

진정 조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이라면 공동선언의 정신인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더욱 들어쥐고 나가야 할 것이다.

언제나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길 앞에는 민족의 자랑찬 아들, 딸들인 청년학생들이 있었다.

청년학생들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자신의 한몸을 희생하며 역사를 전진시켜 왔다.

7천만 겨레가 공동선언 기치 높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길로 달려나가는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공동선언 깃대를 높이 들고 통일조국의 영마루를 향해 가장 최선두에서 서 있어야 할 것이다.

하여 이 땅의 자랑찬 조국통일의 선봉부대인 청년학생들은 사상과 정견, 신앙을 넘어서서 6.15 공동선언 기치 아래 단결을 실현할 것이다.

단결하여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투쟁 속에서 공동선언을 더욱 철저히 고수 이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이 땅의 청년학생들은 공동선언을 더욱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행군 길을 시작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6.15 공동선언의 요구대로 살아가면서 6.15 민족통일대추전 성사와 8월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를 거족적으로 성사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갈 것이며, 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인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하나같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청년학생들이여!

우리 모두 다 공동선언 깃발아래 단결하여 마음을 모으고 공동의 실천을 강화하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에 민족의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6.15 민족통일대추전 성사!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 성사로 조국통일의 그 희망찬 길을 열어제끼자!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5월 4일

6.15 공동선언 이행, 학생단체 대표자 간담회 참가자 일동

(기행연합, 원리연구회, 전대기려, 전여대협,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한국기독교학생연합회, 한총련)

전대기련은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언론의 생명으로 여기는 2천 열혈청년기자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곧은 붓 움켜쥔 청년의 가슴은 기필코 가야할 이길에서 용솨음치고
갈라진 조국의 운명 민중의 사랑으로 밝혀나간다 그대, 전대기련이여
2천의 투혼으로 굳세게 갈라진 붓끝을 한데모아 불길을 지핀다
역사의 주인이여 민중의 등불이여 어둠을 걷어내는 새벽처럼
아~아 전대기련 변치않는 청년이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의창 : 진현철 항공대학보사 편집국장)은 전국(이남) 대학신문 기자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전대기련은 87년 대학신문 선배기자들의 노력으로 결성되어 현재 전국 126개 4년제 대학신문사 2천여명의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년부터 전국 대학신문기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끝에 1985년 '자유언론 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자대기련)'을 결성했고, 90년 자대기련은 서울지역기자연합(서대기련)과 경기인천지역기자연합(경인기련)으로 나뉘면서 모두 7개의 지역기련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출범 16년째를 맞이하는 전대기련은 전국 13개지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대기련은 출범이후 지금까지 민족자주언론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학신문은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언론의 생명으로 여기며, 항상 학우와 민중들의 자주적 지향과 염원을 실현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민중항쟁, 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 공동기자단, 91년 열사정국, 93년 쌀수입개방 반대투쟁, 95년 5공비리 청산, 96년 연세대통일투쟁, 97년 김영삼정권타도투쟁 그리고 2000년 이후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까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청년의 붓을 휘날렸습니다.

특히, 91년 처음으로 남북청년학생 판문점 회담을 성사시키고, 93년, 98~2001년 방북취재를 성사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전대기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의 언론관을 굳건히 지키며, 대중속에서 지지, 성원받는 대학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왔습니다.

전대기련은 대학신문혁신운동(주체, 조직, 지면), 조직사상운동 등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또한, 취재작풍혁신과 대중접촉구조 확대 등을 실천하며 학우대중들 속에서 살아숨쉬는 대학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내고 있습니다.

2002년 28기 전대기련은 열혈청년기자의 결심으로 새로운 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 단위 신문사의 강화발전, 대학신문 대중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대기련은 시대의 요구 앞에 이 한 몸 폭풍우로 바쳐가는 청년학생으로, 민족자주언론으로 6.15 새시대를 개척하는 언론 일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 학우 여러분!

만나서 넘 반갑습니다.

5월 축전(출범식)을 힘있게 함께 하고자 온 저희는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입니다.

어! 이름을 처음 듣는다고요...혹시 학교동아리중에서 SCA(스카)라고 들어보셨죠? 저희가 바로 SCA회원
들고 이루어진 KSCF입니다.

백만학우 여러분께 저희를 소개하고자 소망이 있네요.

조금만 읽고 지나가시면, “아~ 애네들이 이런 애들이구나”하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거예요.

첫째마당, 저희는 요? 이렇게 침 시작했어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와 자유와 생명, 변혁의 영이며 항상 진리의 편에 서라고 권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심 굳게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토대로 하여 민족의 개화기에 '협성회'를 통한 민족계몽운동과 일제하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기독교학생운동은 1948년 4월 25일 대한기독교학생회 전국연합회(KSCF)란 이름으로 역사의 무대위에 당당히 등장하여 해방후의 분열과 혼란의 시대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후 기독교학생운동은 한국기독교학생회(KSCM)로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60년대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며 역사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둘째마당, 이제까지 오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1969년 11월 23일 한국기독교학생회(KSCM)은 대학 YMCA와 통합을 선언하여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을 탄생시켰고요, '한국을 새롭게'하기 위하여 학생사회개발단(학사단)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사법살인으로 일컬어지는 민청학련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대통령은 군사독재정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해 10월유신을 단행함으로써 인본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분노가 1973년 10월 유신체제하 최초의 시위가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지면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가 저물면서부터 재야 민주세력은 유신헌법의 개헌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국민들의 민주화 여론에 힘입어 1974년 대투쟁을 준비하던 중 박정권은 민주화의 여론은 탄압하고 학생들의 3,4월 공세를 꺾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였습니다. 1974년 4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총궐기하자, 박정희 정권은 이를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의 책동으로 돌리고,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여 대규모 검거 선포를 벌였다. 그러나 민청학련은 조직이라기보다 선언문 말미에 적어 넣은 허구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무차별 구타, 협박, 고문 속에서 이루어진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의 반공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인혁당이라는 가공의 조직을 만들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들을 조종했다는 각본을 만들어 내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민주화의 흐름에 온 몸으로 항거하던 KSCF 선배님들의 민청학련 운동으로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90년대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운동이 요청되었고, 또한 대학 YMCA가 94년에 분리하게 됨으로 기독교학생운동은 새로운 상황과 조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YMCA와는 다른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마당, 강철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용광로에서 단련되었구요.

이런 구속과 수배,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견디어내던 우리는 이 민족의 문제는 분단에서 비롯하고, 분단의 영속은 민중의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자각과 함께 “민족공동체를 새롭게”라는 구호를 전면에 걸고, 민족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민족 해방 나라 건설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학원선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SCA(스카)라는 이름으로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였고, 민족의 통일과 민중의 해방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넷째마당, 지금은 백만학우와 함께 숨쉬는 조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93년 한총련의 출범과 함께 부문계열 대의원으로 자격으로 한총련을 사수하고 학생운동의 전면에서 투쟁하던 중 전체운동에 대한 많은 논의로 인해 한총련을 탈퇴하여 지금은 연대조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위 학교 SCA에서는 학생회와 함께 백만학우와 함께 투쟁을 전개하여, 지금 오늘 여러분과 KSCF 조직 전체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함께 숨쉬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다섯째 마당. 이제 끝인데...조금만 더 읽어주세요..ㅋㅋ

우리는 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백과 실천의 길을 걸어왔던 전통을 이어받으며 민족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하라는 것임을 고백하고 이를 위해 힘차게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원이 정의를 실천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가 실현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사속에서의 그 사명을 다 담당하여 통일 시대를 여는 공동체가 되도록 갱신하며, 사회를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한총련 백만학우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이번 출범식을 백만의 힘으로 함께 사수하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의 자주 민주 통일이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 아멘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1. 전여대협은?

전여대협은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 준말로 전국의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전여대협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로 나서는 봉건적인 낡은 사상과 자본주의의 성차별적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적인 힘으로 평등·인간해방 된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은 50만 여학우를 대중으로 하는 조직답게 각 지역별 지구별 대학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여학생부나 소모임 과여학생회에 여학우들이 망라되고 이것이 단대 여학생회로 묶여지며 또한 한 대학을 아우르는 총여학생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별 지역별로 지구여대협, 지역여대협을 만들게 되고 전국조직인 전여대협이 되는 것입니다.

2. 전여대협의 역사

87년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발족 이후 각 지역여대협 발족

88년 매춘 율리피 반대 투쟁,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에이즈 추방운동

89년 평양축전 제 7센터 참여 및 민족 통일 여학생단 조직, 활동,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준비위원회 결성

90,91년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 취업차별철폐투쟁, 지속적 지역 교류 사업,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93년 윤금이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공동 발족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 전여대협 2기 통일선봉대 활동,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에 가입

95년 1기 전여대협 의장 박경희(경희대 총여학생회장), 제1기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전여대협 3기 통일선봉대 활동,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성폭력 상담 요원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전개, 이북과의 첫 자주교류 시작,

96년 2기 전여대협 의장 김유경(경성대 총여학생회장),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수요집회 전국 집중 투쟁, 4기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97년 3기 전여대협 의장 김정숙(동아대 총여학생회장),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 투쟁, 반여성정권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쟁,

98년 4기 전여대협 의장 장운영(경북대 총여학생회장), IMF반대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 300차 수요집회,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99년 5기 전여대협 의장 최선영(경기대 총여학생회장), 주한미군 철거 투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 3자 연대 해결 투쟁, 3.19용산미군기지 앞 항의시위,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2000년 6기 전여대협 의장 유정숙(전남대 총여학생회장), 400차 수요집회, 전여대협 반성폭력 학칙 제개정 공대위 결성 및 활동, 전여농 전여대협 여성농민학생연대활동,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지역별 릴레이 수요집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참가

2001년 7기 전여대협 의장 조희진(동아대 총여학생회장), 일본의 역사왜곡 반대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6.15 금강산 통일토론회, 6.23 국제전범재판 전여대협 대표 파견, 8.15 민족공동행사 전여대협 대표 평양 방문

3. 2002년 전여대협 총기치 및 대략적 활동

전여대협의 새로운 결심!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닦아,
여성노동권 확보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적 국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라는 총기치를 걸고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5,6월 사업을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반성폭력운동의 전환을 위해 40일 비상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전여대협 2002년 차추교류 계획

현실적으로 북에서 이남의 전여대협과 같은 조직이 없는 이유로 실질적인 교류사업에 있어 한계지점이 있음으로 인해 현재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북의 여성들과 이남의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7월 중에 있을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잘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공동선언 이행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